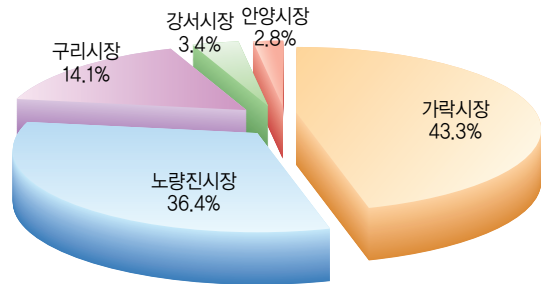


이번 FOCUS는 수도권 도매시장의 굴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5개 법정도매시장 (노량진, 가락, 강서, 구리, 안양) 관계자를 면담조사한 결과이다.

● 수도권 법정도매시장 굴 유통량, 국내 유통물량의 38% 차지

- 수도권에 소재한 5개 법정도매시장의 굴 유통물량(2007년 기준)은 6,800여 톤으로 국내 유통물량의 약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시장별로는 서울에 소재한 가락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이 수도권 법정도매시장 굴 유통물량의 약 80%를 취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있는 구리시장이 14.1%, 안양시장이 2.8%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법정도매시장의 굴 유통현황〉



주 : 알곡로 환산한 비율임

자료 : 수도권 5개 법정도매시장의 관계자 면담조사 (2008.4.14~25) 결과

● 통영은 '중도매인', 기타지역은 '생산자' 가 주로 출하

- 수도권 법정도매시장의 산지별 거래물량은 통영·고성·거제산이 70%로 가장 많은데, 주로 산지수협의 중도매인이 출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 고흥·여수·남해 등 기타지역은 산지의 생산자가 직접 출하하는 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이들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고흥·여수산 굴은 11월~익년 2월에 거래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지별 굴 출하현황〉

산지	비율(%)	주 출하주
통영·고성·거제	70	산지중도매인
고흥·여수	15	산지생산자
남해·마산	10	산지생산자
기타	5	산지생산자

자료 : 수도권 5개 법정도매시장의 관계자 면담조사 결과

● 수도권 법정도매시장 굴 판매처, '재래시장' 이 가장 많아

- 수도권 법정도매시장의 굴 판매처는 재래시장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재료 납품업자 20%, 개인 소매업자 및 일반음식점 10% 등으로 나타났다.
- 한편 가락시장과 노량진시장의 도매상들은 거래물량의 약 10%를 수도권 소재 다른 법정도매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구리·강서·안양시장에서는 일반 음식점과 마트에 판매되는 물량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집필진

강종호(총괄), 옥영수(생산·가격전망), 박광서(생산·산지가격), 김효진(도소매가격·수출입·해외·FOCUS)



굴 수산물관측

2008년 5월호

통권 제112호 2008년 5월 6일 발행 등록번호 서울 라09578 ISSN 1739-5283 발행·편집인/ 이 정 환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쇄/ 서울기획문화사
주소/ 121-27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52 KBS미디어센터 14층 TEL. (02)2105-4920 FAX. (02)2105-493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수산물의 생산, 가격, 수출입 등 수산물 전반의 수급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매월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관측정보 및 수산업관측사업에 대한 설명은 홈페이지(<http://www.foc.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월 굴 생산량, 전월보다 15% 감소한 3,330톤

5월 생산량은 감소, 산지가격은 강보합세 전망

- 4월 굴 생산량은 모든 지역에서 생산이 줄어들면서 3월보다 15% 감소한 3,330톤으로 추정되었다. 4월 말 생산 가능한 잔여시설량은 초기시설의 9%인 209만 연으로 작년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 4월 굴 양성상태는 전월보다 좋아진 가운데, 통영의 일부 해역에서는 성장과 비만도가 다소 부진하고 고성에서는 해적생물 부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4월 산지가격은 전월에 비해 2% 하락한 kg당 2,811원을 기록하였으나,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15% 높게 형성되었다. 한편 4월 수출량은 2,499톤으로 최근 3년 내 월별 수출량 중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 5월 생산량은 잔여시설량이 적기 때문에 전월 및 작년 동월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산지가격은 공급이 감소하는 반면에 수출 호조에 의한 수요 증가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5월 표본어가 조사기간은 5월 24일(토)~28일(수)입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생산동향

4월 굴 생산량 3월보다 15% 감소,
잔여시설량은 초기시설의 9% 수준

양식산 굴은 수하식(垂下式)과 투석식(投石式)으로 생산되나, 투석식은 생산량이 미미하고 시설량 파악이 곤란하여 관측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월 굴 생산량, 전월 대비 15% 감소한 3,330톤

- 4월 굴 생산량은 모든 지역에서 생산이 줄어들면서 3월에 비해 15.0% 감소한 3,330톤으로 추정되었다.
- 경남의 생산량은 전월에 비해 14.1%가 감소한 3,147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94.5%를 차지하였다.
- 전남에서는 2008년산 굴 생산이 대부분 마무리에 들어가면서 3월에 비해 28.0% 감소한 183톤이 생산되었다.

<4월 굴 생산 동향>

(단위 : 톤)

구 분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 국	4,395	3,916	3,330	-15.0
경 남	4,110	3,662	3,147	-14.1
전 남	276	254	183	-28.0
기 타	9	0	0	0.0

주 : 알굴 기준으로 4월은 잠정치이며, 기타지역은 강원, 경기, 인천임

4월 말 잔여시설량, 초기시설의 9%인 209만 연

- 충남을 제외하고 생산 가능한 4월 말 잔여시설량은 초기시설의 8.6%인 209만 연으로 추정되었다. 이 물량은 작년 동월보다 적은 수준으로 2007년산에 비해 총 시설량 중 월하연의 비중이 높아 어기 초에 생산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경남의 잔여시설량은 초기시설의 10.8%인 175만 연이었으며, 채취율이 경남보다 높은 전남은 초기시설 대비 4.3%인 33만 연이 남아 있다.

<4월 말 굴 잔여시설량(수하연 수) 현황>

(단위 : 만 연)

구 분	수하연 평균 길이(m)	초기시설량	4월 채취량	잔여시설량	잔여시설률(%)
전 국	4.0	2,435	193	209	8.6
경 남	5.1	1,624	150	175	10.8
전 남	2.6	767	43	33	4.3
기 타	1.4	44	0	1	2.3

주 : 1) 4월 채취량 및 잔여시설량은 잠정치이며, 기타지역은 강원, 경기, 인천임

2) 충남은 초기시설량 259만 연, 잔여시설량 217만 연이나 기름오염 피해가 심해 제외하였음

4월 굴 양성상태, 대부분 지역에서 전월보다 양호

- 4월의 굴 양성상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월보다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경남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통영의 일부 해역에서 성장과 비만도가 다소 부진하였고, 고성에서 해적생물이 다수 부착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전월보다 양호해졌다.
- 전남의 경우도 해황여건이 좋아 양성상태가 전반적으로 전월에 비해 양호하였다.
- 한편 4월말로 2008년산 굴 생산이 사실상 종료된 남해와 완도의 경우 어기 내내 예년에 비해 좋은 양성상태를 보였다.

〈4월 굴 양성상태〉

	지 역	성 장	비 만 도	폐 사	병 해	비 고
통영	한산만	○	○	○	○	해황여건이 좋아 양성상태 양호
	인평·도산만	○	△	○	○	비만도는 다소 부진하나 대체로 양호
	지도·원문만	△	△	○	○	성장과 비만도 다소 부진하나 대체로 양호
고성	고성·자란만	○	○	△	△	성장과 비만도 대체로 양호, 해적생물 다수 부착
거제	거제만	○	○	△	○	해황여건이 좋아 양성상태 대체로 양호
	진해만	○	○	○	○	해황여건이 좋아 양성상태 양호
남해	강진만	○	○	○	○	해황여건이 좋아 양성상태 양호
여수	가막·장수·여수만	○	○	△	○	성장은 양호하고 비만도는 매우 양호
고흥	-	△	○	○	△	비만도 대체로 양호, 해적생물 다수 부착
완도	-	○	○	△	○	해황여건이 좋아 양성상태 대체로 양호
진도	-	-	-	-	-	3월에 생산 종료
서산·태안	가로림만 등	-	-	-	-	양식시설 대부분 기름오염 피해, 시설물 일부 철거

주 : ○는 좋음, △는 보통, ×는 나쁨

〈해황 및 기상예보〉

(기간 : 5월 1일~31일)

■ 5월의 수온전망(국립수산과학원)

구 분	동해 중남부	남 해	서해 중남부
수온 분포	12~18℃	13~19℃	10~14℃
평년 대비	1~2℃ 내외 고온상	1~2℃ 내외 고온상	1~2℃ 내외 고온상

■ 5월의 기상전망(기상청)

구 분	날 씨	기 온	강수량
상 준	맑은 날이 많겠음	평년(평균기온 11~17℃)보다 높겠음	평년(24~82mm)과 비슷하겠음
중 준	맑은 날이 많겠음	평년(평균기온 12~18℃)보다 높겠음	평년(27~80mm)과 비슷하겠음
하 준	맑은 날이 많겠음	평년(평균기온 13~20℃)과 비슷하겠음	평년(13~59mm)보다 많겠음

가격동향

4월 산지·소매가격은 전월보다 하락, 도매가격은 상승

4월 산지가격, 전월보다 하락하였으나 작년 동월보다 높아

- 4월 생굴 산지가격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전월에 비해 2.2% 하락한 kg당 2,811원을 기록했다.
- 그러나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작년에 비해 4월의 생산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월별 생굴 산지가격 동향〉

(단위 :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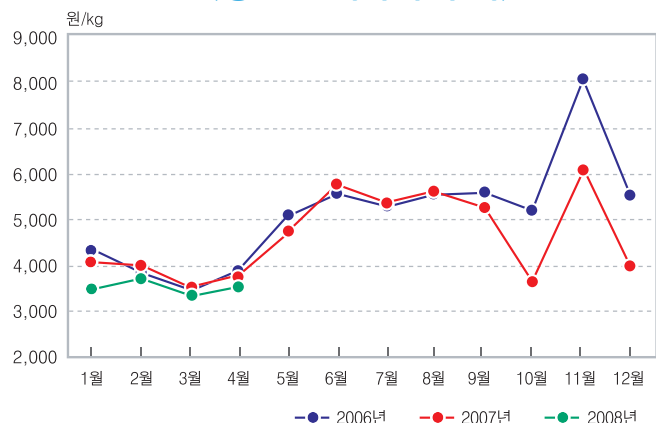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4월	3월	4월		
평 균	2,441	2,876	2,811	-2.2	15.2
통 영	2,475	2,881	2,782	-3.4	12.4
고 성	2,113	2,902	3,105	7.0	47.0
여 수	2,241	2,546	2,309	-9.3	3.0

주 : 2008년 4월은 잠정치
자료 : 각 수협

4월 도매가격, 전월 대비 소폭 상승

- 4월 굴 도매가격은 전월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 노량진수산시장의 도매가격은 kg당 3,545원으로 전월에 비해 6.4% 상승하였는데, 이는 수출용 가공굴의 수요가 증가하여 생굴 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 한편 농수산물유통공사(상품)의 도매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kg당 5,794원이었다. 그러나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6.0% 낮은 수준이다.

〈생굴 도매가격 추이〉



자료 : 노량진수산시장

〈월별 생굴 도매가격 동향〉

(단위 :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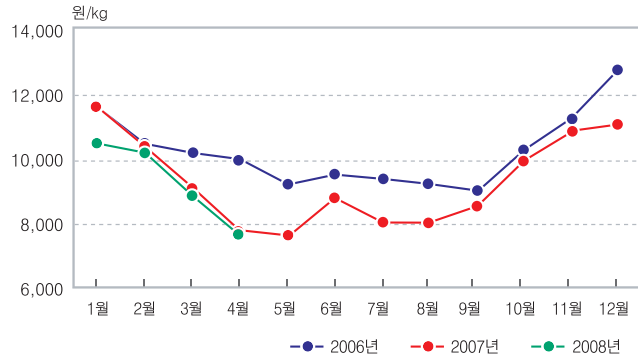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4월	3월	4월		
노량진수산물시장	3,721	3,330	3,545	6.4	-4.7
농수산물유통공사(상품)	6,167	5,779	5,794	0.3	-6.0

주 : 노량진수산물시장은 평균 경락가격,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조사가격(2008년 4월은 잠정치)

● 4월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13% 하락

- 4월 생굴 소비자가격은 전월보다 12.7% 하락한 kg당 7,644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1.4%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서울은 전월에 비해 10.6% 하락한 kg당 8,000원이었으며, 대전도 전월 대비 15% 이상 크게 하락하여 kg당 7,979원을 기록하였다.

〈생굴 소비자가격 추이〉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월별 생굴 소비자가격 동향〉

(단위 : 원/kg)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4월	3월	4월		
전 국	7,749	8,755	7,644	-12.7	-1.4
서 울	8,500	8,949	8,000	-10.6	-5.9
부 산	7,000	7,290	7,063	-3.1	0.9
광 주	8,092	8,647	8,000	-7.5	-1.1
대 전	7,576	9,539	7,979	-16.4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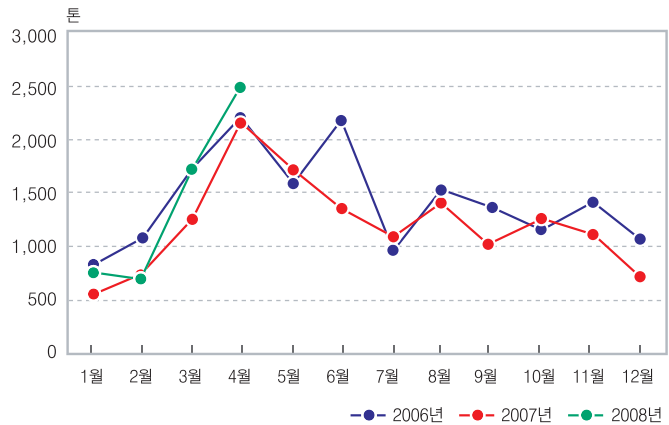
주 : 2008년 4월은 잠정치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동향

4월 굴 수출량, 최근 3년 내 가장 많은 2,499톤

- 4월 굴 수출량은 전월에 비해 45.5% 증가한 2,499톤으로 최근 3년 내 월별 수출량으로는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 제품별로 살펴보면, 모든 가공품의 수출량이 전월보다 많았으며, 특히 냉동굴은 1,365톤으로 전월 대비 38.4% 증가하였다.
- 한편 4월까지 누적 수출량도 작년 동기간에 비해 20.6% 많은 5,683톤이었다.

〈굴 수출량 추이〉



주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수출입통계」를 바탕으로 알 굴로 환산(마른굴은 5배, 통조림은 2.5배 수율 적용)하였고, 치패는 제외하였음.(2008년은 잠정치)

해외동향

미야기현의 2008년산 굴 생산량, 작년산 대비 24% 증가

- 미야기(宮城)현은 히로시마현(廣島)에 이어 일본의 주요 굴 생산지이며, 자국산 굴 생산량의 약 25%를 차지한다.
- 미야기현의 2008년산 굴 공판 실적은 4,192톤으로 노로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아 생산이 급감했던 2007년산에 비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평균단가는 kg당 1,139엔으로 2007년산보다 15.5% 낮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월별로는 변동폭이 컸던 2007년산과 달리 1,000엔대의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였다.

〈미야기현의 2008년산 굴 공판 실적〉

(단위 : 엔/kg)

구 분	2007년산	2008년산	증감률(%)
물량(톤)	3,380	4,192	24.0
금액(엔)	455,600	477,600	4.8
단가(엔/kg)	1,348	1,139	-15.5

자료 : 일본 미야기어련

생산 및 가격전망

5월 생산량은 전월 및 작년 동월보다 줄고,
산지가격은 강보합세 보일 듯

5월 굴 생산량, 4월 및 작년 동월보다 감소할 듯

-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생산 가능한 잔여시설량이 적기 때문에 5월 생산량은 4월 및 작년 5월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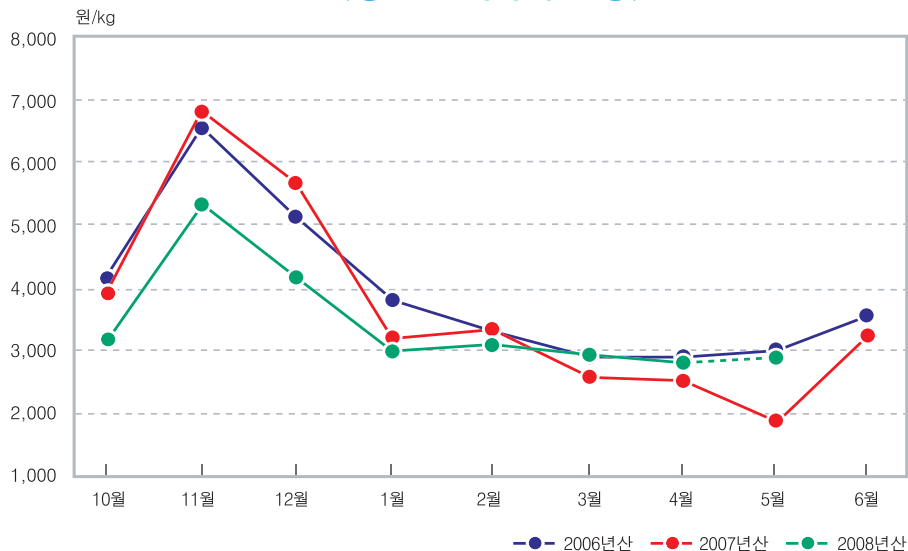
5월 굴 수출량, 4월보다 감소할 듯

- 5월 굴 수출량은 냉동굴 가공이 종료됨에 따라 4월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출여건이 작년보다 호전되어 작년 5월 수준보다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5월 생굴 산지가격, 강보합세 전망

- 5월은 생산 마지막 시기에 이르게 됨에 따라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는 때에는 하지만, 잔여시설량이 적어 공급 가능 물량이 줄어들고 수출 호조에 의한 수요 증가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지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생굴 산지가격 전망〉



주 : 2008년 5월은 전망치이고, 산지가격은 굴수하식수협 위판가격 기준임

자료 : 굴수하식수협